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 고조

대한상의·전경련 경협 성공 위한 조사연구 착수 기업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위원회도 출범

4월 27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도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 준비에 나서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복측 경제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남북 경협에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 연구에 들어갔다.

경제계에 따르면 재계 싱크탱크 역할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계 만행으로 부상한 대한상의는 이달 중 민간 싱크탱크 '지속성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초 이달 초 공식

출범을 기대했지만 연구인력 총원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는 거시경제 동향과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경제 아젠다(이니셔티브)를 설정해 연구하는 조직으로 올해 주요 연구 과제에 남북 관계 전망 및 협력 추진방향도 포함됐다. 남북 상공인 교류와 경협 사업, 북한 경제 조사 등이 첫 연구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산업정책팀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북한의 대표 경제단체인 조선상의와 북한의 대표 경제단체인 조선상의와 민간 차원의 교류 방안 등을 모색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 내부 조직에 남북경협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남북 경협 관련 토론회를 연 전경련은 전문위원회 출범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달 중 개점휴업 상태였던 통일경제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앞서 전경련은 2014년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관련 기관 대표 23명과 전문연구자 9명으로 통일경제위원회를 구성했다. 2015년에는 북한경제 개발 마스터플랜이란 보고서를 내기도 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사실상 기능이 유아무아된 상태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남북 경제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조사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정부의 한반도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과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재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북한의 개혁·개

방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북한경제 개발 마스터플랜에는 전경련의 평양사무소 개설도 포함돼 있어 이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표성과 사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회원사 대표 가운데 위원장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북한경제 마스터플랜과 경협 실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남북 경제협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비핵화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어느 때보다 남북 경협에 기대감이 높다"며 "정상회담 이후 경협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만큼 경제단체의 경쟁 양상도 엇비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30년 경력 소상공인, '백년가게'로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 가진 기업 지원대상

30년 이상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전문성과 혁신성을 가진 이들을 '백년가게'로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충무로의 한 음식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해온 소상공인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에서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이들 업종은 생계형 창업이 만연한 과밀업종으로 생존율이 특히 낮아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성공사례를 창출해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지속성장 가능성 및 성공 모델 확산 등 정책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원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백년가게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식산 등 유명 O2O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이 이뤄지게 된다.

또 금융부문에서도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는 등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협업화도 지원하는 한편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기업승계 관련 교육 및 인식 개선, 안정적 입자환경 구축, 청년 인력의 안정적 유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출혈경쟁, 빈번한 창업과 폐업 등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 속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이 90여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2만2000여개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 5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다음달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금융위, 하반기 발표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박찬원 정몽헌협 이사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안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실시 후 올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김영태 기자



"대한민국 함께 응원해요" 18일 서울 다이소 교대역점에서 모델들이 다이소 스포츠 응원용품을 소개하고 있다.

농진청, 복분자 첨가 발효유 실험 결과 발표

유산균 1.9배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 최대 2.5배 ↑

발효유에 복분자를 첨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최대 2.5배 늘어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복분자 가루를 첨가한 발효유의 영양 분석 실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우유 11에 소주잔 3분의 2 분량인 복분자 가루 10g과 농후발효유 100ml를 넣어 요구

르트 제조기(40±1도)에서 6~8시간 발효시킨 음료를 사용했다.

이 음료는 복분자 가루를 넣지 않은 것보다 항산화 능력이 2.4배 높게 나타났다. 복분자 가루 양을 20g으로 2배 늘리면 항산화 능력은 2.5배까지로 증가했다.

유산균 수도 복분자 가루를 넣지 않

은 음료보다 10g을 넣었을 때 1.9배, 20g을 넣었을 때는 1.3배 증가했다.

다만 복분자 가루를 우유의 2%보다 더 넣을 경우 맛과 식감이 오히려 떨어졌다.

복분자는 검붉은 색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좋다. 6월에만 수확할 수 있지만 건조 가루를 사용하면 영양소 손실 없이 일년 내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부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는 "기온이 점차 올라 면역 기

능과 생체리듬이 깨지기 쉬운 시기에 발효유 섭취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특히 복분자를 넣으면 항산화 효과와 함께 몸 안의 유익균 수를 늘려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업체 추가 모집

1차때와 자격 기준 동일... 내달 말 선정·고시

정부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할 업체를 추가로 뽑는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일까지 15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공급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이는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시행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아나스푸드, (주)삼신, (주)본프레쉬, 회오리유한회사, 삼계농협협동조합, (주)푸드팩토리, 동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7곳을 1차로 선정했다.

자격 기준은 1차때와 동일하다. 공

급업소의 인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한 운영제안서 발표심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정해 다음달 31일께 고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은 뒤 관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충북 영동군 영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148개, 연내 전국 6054개 초등돌봄교실 어린이 24만여 명에게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